

# 조선시대 관청 광화문 ‘의정부’ 터 시민에 한 발짝 유구관람·역사유적공원 세운다

VR·영상 등 콘텐츠 전시  
내년 5월까지 설계 공모  
1년간 공사, 142억 투입

서울시가 광화문 앞 의정부 터에 유구보호시설을 세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종로구 세종로 76-14 등(옛 광화문시민 열린마당) 5필지에 유구보호·관람시설과 역사유적 공원이 들어선다.

시는 경복궁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일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구보호·관람시설을 지어 도심의 대표적 역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선시대 최고 관부인 의정부를 중심으로 육조대로(현 세종대로)의 역사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시할 계획이다.

시는 의정부 건물(정본당·협선당·내행랑)에 보호시설을 지어 노출 전시하고 석회당과 근대기 건물(경기도청) 기초는 복토해 흔적을 표기하기로 했다. 연지·정자를 재현하고 후원 영역에서 이뤄졌던 당대 문화 활동과 각종 기록을 토대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 주변에는 조경과 휴게 공간을 조성해 공원으로 활용한다. 역사유적 공원에는 다양한 유구들이 야외 전시된다.

시는 향후 역사적 고증 및 연구결과에 기반한 장기적인 복원 가능성을 고려해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남아 있는 유구를 원위치에 현 상태로 보존하기로 했다.



의정부 유구보호시설 및 역사유적 공원 조감도 예시. /서울시

시는 의정부를 비롯한 육조대로 일대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고안, 전시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출토 유물과 관련 사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VR, 모형, 패널, 영상 등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해 실내·외 전시물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유구 보존처리와 유적발굴, 정비과정을 하나의 전시 콘텐츠로 구성하고 복토한 유구와 후원 구역까지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야외 전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과거 육조대로,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관광·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유구보호시설 설계, 공사, 콘텐츠 개발, 전시물 제작 등 분야별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해 사업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사문화재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서울역사박

물관은 유물을 제공·관리하는 등 전문 영역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유구보호·관람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를 실시한다. 부지면적은 1만1300㎡이며 전시관 연면적은 1300㎡(높이 9m 미만), 정본당과 협선당 유구보호시설은 1100㎡ 규모다. 시는 국제 설계공모를 거쳐 선정된 당선사와 설계용역을 시행한다.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에는 14억8300만원이 투입된다.

유구보호·관람시설과 역사공원 조성 공사는 내년 6월부터 그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건립 공사비는 142억원이다. 시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문화재수리실측, 문화재조경 등록업체를 선정해 시공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최고 관부인 의정부 유적을 진정성 있게 정비해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생활상권’ 7000만원 지원 골목경제 살릴 후보지 공모

서울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11일까지 후보지 20곳 모집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생활상권 2기 사업’ 후보지역 2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생활상권 육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골목경제를 살리는 상권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에 밀려 어려워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20곳은 주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꾸린 후 주민친화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스토어를 운영하고 생활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제 수행 기간에 후보지당 최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2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상권별 성과를 평가해 최종 10곳의 대상지를 확정, 3년간 1곳당 최대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활상권 후보지 신청은 자치구별로 최대 3곳까지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수행역량, 예산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기 생활상권 5곳(양천구 신정6동, 관악구 난곡동, 종로구 창신동, 서초구 방배2동, 송파구 가락본동)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광장에 ‘대형 마스크’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아이.서울.유(I,SEOUL,U) 호형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형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침체된 미술계 살린다... 130억 투입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자치구당 1~2개 공공미술 기획을 선정해 실행비를 4억원씩 지원하는 ‘코로나19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연계한 사업으로 총 130억원이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창작·전시 무대를 잃어 침체된 미술계를 활성화할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획안 검토와 시민·전문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25~50개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에 참여한 1500개 작품에 단계별로 100만~300만원의 제안보상금을, 최종 선정되면 실행비 4억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이달 4~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차례 이상 전시 경험이 있는 작가나 팀이면 응모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다음달 12일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계와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25개 자치구에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종로경찰서 교통안전 UCC·웹툰 등 공모전

서울종로경찰서는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 TSH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제1회 2020년 교통안전 UCC·웹툰·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UCC, 웹툰(칸만화), 포스터 일반부, 포스터 초등부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수상작은 교통 안전 홍보 활동(서울청 공식 SNS 및 각종 책자 표지)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운전 습관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운전문화와 가족사랑 표현이다.

접수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나 네이버 교통안전교육홍보 카페에서 공모전 제출 서류 양식을 내려받은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 19일 공고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10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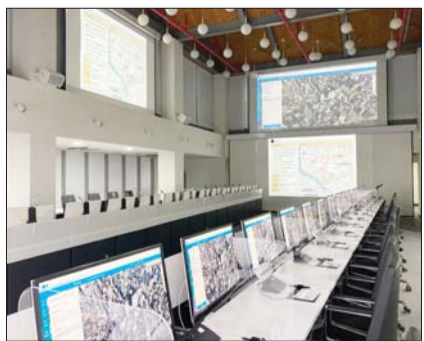
## 서울시, ‘스마트회의’로 도시·건축 심의

VR 등 활용해 전국 최초 운영

서울시는 도시·건축 관련 심의를 위한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을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에 280.4㎡ 규모로 구축했다. 회의공간은 총 33석으로, 자리마다 모니터와 스마트보드가 있고, 키오스크와 가상현실(VR)기기 등 장비도 갖췄다.

이 시스템은 전날 열린 2020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전경. /서울시

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거나 개별 노트북으로 보면서 회의를 했지만 이제는 안전이력, 대상지 현황,

경관 시뮬레이션, 교통·환경영향과 같은 다양한 심의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버추얼 서울’, ‘가상현실(VR) 경관시뮬레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회의 중 스마트보드에 직접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양방향 회의시스템’도 설치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준비위원회, 건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도 이 시스템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 회의실을 도시·건축 관련 회의뿐 아니라 공공부문 관계자, 전문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키로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4일 (금)  
음력 : 7월 17일

수도권 날씨  
**27** ~ **19**°C

운중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5 | 해질 / 18:57

연천 18/27  
동두천 18/27  
파주 17/27  
가평 17/27  
서울 19/27  
양평 17/27  
인천 21/27  
수원 19/26  
용인 19/26  
평택 18/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